

- (초등 1~2년) 모우의 이집트 문자 모험 (9.2.~9.24.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12시)
- (초등 3~6년) 문자 여행가가 된 예술가 (10.14.~11.12.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12시)
- 박물관 누리집(www.mow.or.kr)에서 무료신청 가능(프로그램 종료 3일 전까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오는 9월부터 11월 12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2종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고대 서기관이 되어 이집트 상형문자를 기록하거나, 예술가의 시각으로 세계 문자를 새롭게 탐구·표현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9월 2일 시작되는 ▲<모우의 이집트 문자 모험>(9.2.~9.24.)은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고대 이집트 서기관이 돼 갈대펜과 팔레트를 사용해 파피루스에 상형문자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하며, 문자 기록과 전달의 중요성을 배운다.

▲<문자 여행가가 된 예술가>(10.14.~11.12.)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어·미술·사회 등 교과 연계 프로그램이다. 상설전시실을 탐험하며 5가지 문자와 유물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인상적인 문자와 유물을 그림·조각·사진 등 다양한 예술 방식으로 기록하고 표현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계자는 “문자를 바탕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춘 교육과 체험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창의적 표현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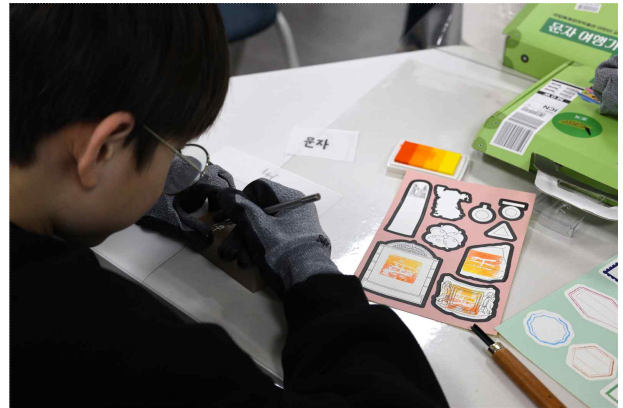
이번 교육프로그램 2종은 현재 모집 중이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www.mow.or.kr)을 통해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www.mow.or.kr)→교육→교육신청
- 대상: 초등 1~2학년, 초등 3~6학년
- 문의: 032-290-2053, 2976

붙임 : 이미지 자료 1부(4장). 끝.



[사진1] 고대 이집트 기록도구로
상형문자를 기록하는 어린이



[사진2] 문자 표현 키트를 활용해 그림, 조각,
사진 3가지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어린이



[사진3] '모우의 이집트 문자 모험'
교육 홍보 포스터



[사진4] '문자 여행가가 된 예술가'
교육 홍보 포스터